청년 발심 출가…대자유 길로 나아가다


삭발 아사리 남일 스님이 최원호 씨의 삭발을 돕고 있다.

최원호 대불청 前조직팀장
5일 출가…연화사서 삭발
"많은 이에게 도움 되고파"
묘장 스님 "세심하게 지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오늘 삭발하려는 그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교단을 지키는 승단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출가하기 위해 절을 찾아온 이에게 삭발 아사리인 남일 스님이 '삼보호지'의 물음을 던졌다.

"예."

합장한 채 무릎 꿇고 앉은 우바새의 나지막한 대답.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삼배 먼저 올리고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된 출가자 감소로 인해 출가 첫 삭발의식을 보기 드문 요즘, 9월 5일 서울 동대문구 연화사에서 입산자의 삭발의식이 치러졌다. 삭발의 주인공은 며칠 전까지 대한불교청년회 조직팀장으로 근무한 최원호(34) 씨. 불과 이틀 전에는 조계사 하안거 회향맞이 방생법회를 따라 담양 용흥사까지 다녀온 청년불자다.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일한 그가 '위대한 포기'를 결심한 것. 삭발의식을 앞두고 최 씨에게 출가동기를 물었다.

"어려서부터 출가 권유는 많이 받았지만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절에서 일하거나 봉사를 하면서 불자님들을 맞이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얼마 전 최 씨가 가족에게 출가의사를 밝히자 부모님은 "마음 가는대로 하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불자인 부모님도 아들이 언젠가는 출가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은연중 품고 있었을 터. 최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인연이 된 김천 송학사 주호 스님에게 출가상담을 요청했고, 비구니인 주호 스님은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을 찾아가보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최 씨는 묘장 스님을 만나 출가상담을 받고 3일이 지나 출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씨는 "죽음을 초월한 스님들을 보고 고1 때부터 출가를 결심했다는 묘장 스님 말씀에 큰 울림을 받았다"며 "저도 불교단체에서 일하면서 큰스님들을 찾아뵙고 법문을 들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언과 함께 시작된 삭발의식. 삭발 아사리 남일 스님의 가위질에 기다란 무명초(無明草)들이 좌복 위로 떨어져 내렸다.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태어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을 삭발에 최 씨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다.

20분에 걸쳐 이발기와 면도기로 깨끗하게 삭발을 마친 최 씨는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며 세속을 떠나 출가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남일 스님은 행자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최 씨에게 바지 아래 행건을 채워주며 "고맙고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남일 스님은 이어 사문에 들어선 최 씨에게 행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설했다. 스님은 "행자님은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세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출가는 또 한 번의 기회다.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보겠다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스승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써야 한다"면서 "고통 받는 중생을 어떻게, 어떤 지혜로 제도하고 아픔을 위로할 것인지 수행을 통해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법을 마친 남일 스님은 "승단에 고귀한 인연이 찾아와 축복해야 하는 날"이라며 "은사는 아니지만 삭발 아사리의 연을 잊으면 안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최 씨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힘이 들어도 꿋꿋하게 이겨내서 행자생활을 잘 마치고 사미계를 받아 스님이 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최 씨의 은사인 묘장 스님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정 때문에 삭발식에 함께하지 못했다. 묘장 스님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자가 자신만의 원력을 잘 세워서 수행으로 성취하길 바란다"며 "불교와 종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님이 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수덕사·송광사 성보 디지털로 만난다

불교학술원, 9월 6일 수덕사 · 송광사 업무협약

경허 · 만공 법어집 아카이브
송광사 경판 · 전적 디지털화

덕숭총림 수덕사와 조계총림 송광사가 소장 성보 문화재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이 추진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학술 연구뿐 아니라 대외 홍보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불교학술원은 9월 6일 불교학원장실에서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와 '경허 · 만공 법어집 증보 간행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경허 스님과 그 맥을 이은 만공 스님의 말씀이 담긴 법어집을 증보판으로 간행하는 한편 디지털화 통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허 · 만공 법어집 증보판 간행 △경허 · 만공 관련 제반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사업 관련 상호 협의 등이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이번 간행을 계기로 경허 · 만공 스님의 말씀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대했다. 스님은 "경허 스님 법어 정본 간행과 만공 스님 어록 증보는 이들 선양의 첫 시작"이라면서 "철저한 고증 후 현대적으로 해석, 완벽해진 경허 · 만공 스님의 말씀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묵 스님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불교학술원이 힘이 돼 기쁘다"면서 "법어집의 정본과 증본 간행이 내년까지 마무리 되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증보판 간행부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까지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총괄한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문 학자들에게는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경허 · 만공 스님의 육성이 담긴 법문 통해 수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균형잡힌 법문집을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면서 "산중 어른들의 말씀이 확장성을 갖게되는 작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수덕사, 송광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은 수덕사와의 협약식이며, 사진 오른쪽은 송광사와 협약식.

불교학술원은 같은날 송광사(주지 자공)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송광사 성보 유산과 불교문화 콘텐츠를 첨단 디지털 기술로 가공, 문화유산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송광사서 촬영한 소장 경판 및 소장 전적의 디지털사업 △촬영한 경판과 전적을 활용한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 및 대국민 서비스 지원 △디지털 사업 관련 상호 협의 등이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송광사 화엄경 경판은 해인사 다음으로 양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송광사의 성보들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공 스님에 따르면 송광사는 과거 삼성재단이 지원으로 보유 탱화를 3D로 구현한 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기업의 사회적 환원으로 인한 좋은 결과물들로 불교학술원의 디지털 사업도 동력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생성될 결과물들은 불교학술원이 소장한 아카이브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진우 스님 초청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9월 4일 조계종 예방

10월 열리는 종교회의 소개
진우 스님 "불교 어우러지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있다.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신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9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내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 실무집행회의에 공식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종 대표단을 참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찬란한 불교문화가 카자흐스탄 문화와 어우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 실무집행회의'는 10월 10~1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2022년 제7차 대회가 개최됐으며 불교를 포함해 가톨릭, 이슬람, 성공회, 정토회, 유대교, 힌두교 등 세계 각국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해왔다. 한국 종교계에서 조계종이 유일한 초청 대상이다.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은 불교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치며 남긴 불교벽화 등을 보유한 불교와 매우 관계가 깊은 나라"라면서 "130개 이상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10만여 고려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의 일원이 돼 자리를 잡은 고려인들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신문이 발간되고 한국어 극장까지 있다고 들었다"면서 "고려인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임은호 기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12월 6일 출발~10일 도착(3박5일간)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년전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불탑입니다.
1460개에 달하는 벽면에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등 생애에 관한 장면들이
그리고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이 조성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화엄법계를구현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조성한 세계 최고의 불탑입니다.

동참금 | 169만원
일 정 | ▶1일 :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자카르타
▶2일 : 자카르타–족자카르타–프람바난사원,세우사원,플라오산 불교사원등 순례
▶3일 : 보로부두르 대탑, 멘듯사원등 순례
▶4일 : 머라피 화산 지프로 관광 후 족자카르타 출발, 자카르타 도착(경유)
▶5일 : 인천 공항 도착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023년 11월 29일~12월 6일

동참금 | 259만원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우는 스리랑카는 섬 전체가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령 2,500여년 된
보리수와 부처님 치아사리, 그리고 바위산 위에
있는 궁전 시기리야, 담불라 황금석굴사원,
폴론나루와의 불상과 유적들,
유럽풍의 휴양도시 갈레 등 아름다운 곳입니다.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70만원~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
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1차) 11월 02일 출발~11월 12일 도착(11일 일정)
▶2차)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3차)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4차) 01월 13일 출발~01월 23일 도착(11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
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
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0월 17일 출발~10월 31일 도착(15일 일정)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01월 16일 출발~01월 30일 도착(15일 일정)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